



### 광주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감사성과 향상과 청렴도 제고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해 '자체감사기구 감사 업무교류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광주도시공사 범진철 상임감사와 제주개발공사 양진철 상임감사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정 기반의 윤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감사기구의 발전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공유·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노병하 기자



### 호남통계청,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의회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빈현준)은 지난 23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호남권 내 지자체 및 학계, 연구원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인사말에서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학계, 연구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호남권 내 통계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 통계의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통계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통계 중장기 발전방향, 지역현안 사업 관련 협조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최권범 기자



### 광주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상시설 상반기간 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26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을 비롯해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4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참여 기관에서는 "대체인력을 지원받음으로써 시설 내 종사자들의 연가사용을 지원할 수 있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이 상당량 해소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파견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을 지원해 사회복지시설의 양질의 일자리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됐으며, 매년 파견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 파견 유형별로는 2024년 1분기 기준 휴가로 인한 파견이 전체 파견 건수의 6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병가 17.2%, 기타 8%, 교육 7.7% 등 순이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무등홀에서 세정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열었다. (사진)

광주시와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동구 저출산극복세(신세원 발굴) △서구 전기차 시대 충전요금 과세방안 △남구 미래산업 발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방향 고찰 △북구 어서와, ESG(에스지)는 처음이지 △광산구 사업형태 다양화로 '사업소' 재정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확대 등 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전기차 시대 충전요금 과세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서구 세무2과 문지영 주무관이 차지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한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신세계, '광주학생 미술대전' 성료

광주신세계가 지역 내 미술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후원한 '2024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2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광주미술관화와 공동주최한 광주학생 미술대전 시상식이 지난 25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김영희 광주미술관 회 이사장 및 대회 참가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광주학생 미술대회에는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337명이 접수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후 전문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 저학년 15점, 초등부 고학년 15점, 중등부 15점, 고등부 15점으로 총 6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29일까지 전시된 후 자리를 옮겨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공개된다. 광주신세계갤러리 전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박소영 기자

### 뉴진스, 하이브 내홍 속 선한 영향력 행사

#### 대학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음반 활동은 물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어도어가 공식 팬 커뮤니티 '포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대학축제 일곱 곳에 참여하는데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신곡 '하우 스위트(How Sweet)', '버블검(Bubble Gum)' 무대와 함께 관객분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도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뉴진스는 이날 고려대를 시작으로 27일 조선대, 28일 동의대와 부산대, 30일 동국대와 세종대, 31일 중앙대 무대에 오른다.

뉴시스



앞서 뉴진스는 최근 영국박물관(대영박물관) 한국실 내 주요 전시 작품 소개 음성 녹음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기도 했다. 청자 꽃무늬 정병, 1300년대 대삼각정자, 조선백자 달항아리 등에 대해 우리말로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의 내홍 속에서도 음반으로도 인기를 확인 중이다. 지난 24일 발매한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 판매량은 발매 첫날에만 약 81만장을 기록했다. 타이틀곡 '하우 스위트'와 수록곡 '버블검'은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장악 중이다.

뉴시스

###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 父와 의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시비'에 휘말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사진)이 아내 수잔 엘더의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강형욱은 지난 25일 공개된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아내의 종교에 대해 "통일교였다. 수잔은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다. 아내는 통일교 2세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다.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욱은 엘더가 20세 때 통일교에서 탈퇴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디스패치'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른다. 통일교에 대해 물으면? 아내는 힘들어했다. (탈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강형욱은 아내가 종교문제로 부모와 부친과 의절했다고도 했다. 그는 "아내는 통일교를 빠져나온 뒤, 장인을 거의 보지 않았다. (장인은)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다. '나 같은 통일교 2세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남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광주남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을 목적으로 설정해 시티병원, 백운광장을 경유해 실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소방·경찰·구청 등 33명의 인원과 9대의 차량이 동원됐으며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통행장에 유발차량 또는 소방용수시설 직근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다"며 "소방기본법과 행정기본법에 의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차량 양보 운전을 생활화하여 시민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 동부경찰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토론회

광주동부경찰은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정책자문단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 관련,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협의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자문단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단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검토하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론회 직후 인근 청소년 밀집 지역 합동 순찰 및 청소년 도박·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 정책에 반영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